

少陽人 身熱頭痛亡陰證과 身寒腹痛亡陰證의 素證 특성에 관한 단면연구

박유경 · 홍해진 · 김윤희* · 황민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Abstract

The Cross-sectional Study on Characteristics between Soyangin *Heat-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Headache* and Soyangin *Cold-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Abdominal Pain*

Yu-Gyeong Park, Hae-Jin Hong, Yun-Hee Kim*, Min-Woo Hwang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city, Kyung-nam, Korea

*Korean Medicine Hospital,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city, Kyung-nam, Korea

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Original symptoms(素證) of Soyangin's and to compare the tendency of their symptoms between Soyangin *Heat-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headache*(身熱頭痛亡陰證) and Soyangin *Cold-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abdominal pain*(身寒腹痛亡陰證).

2. Methods

We recruited 56 Soyangin subjects in the Korean Medicine clinic and researched their original symptoms. Subjects were diagnosed by the Sasang Constitutional specialists 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ation. Subjects were two groups, confirmed to Soyangin *Heat-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headache* and Soyangin *Cold-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abdominal pain*.

All subjects answered the questionnaire about their Original symptoms. We found the differences between 2 groups using the Independent-Samples T-tes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12.0 for Korean.

3. Results and Conclusions

In Original symptoms, Tendency of overeating($p=0.01$), Condition of digestion($p=0.04$), Perspiration after exercise ($p=0.02$), Usual perspiration($p=0.00$), Tiredness after perspiration($p=0.05$) Cold intolerance on extremities($p=0.04$), General edema($p=0.01$) etc. are different between 2 groups. We found the differences of heat and cold in symptoms between two Soyangin syndromes.

Key Words : Soyangin, Yin-Depletion Symptomatology(亡陰證), Original symptoms(素證),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 접수일 2011년 04월 07일; 심사일 2011년 04월 25일
승인일 2011년 05월 30일
• 교신저자 : 황민우
626-770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한의학전문대학원 사상체질과
Tel : +82-55-360-5959
E-mail : azure@pusan.ac.kr

I. 緒 論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서는 “明知其人而 又明知其證則 應用之藥 必無可疑”라 하여 用藥에 있어 知인과 知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중 證에 대해 『東醫壽世保元·少陰人泛論』에서 “蓋有病者 明知其證 則必不可不服藥 無病者 雖明知其證 必不可服藥”이라 하여 生理的 證과 病理的 證이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¹ 여기서 말하는 生理的 證이란 素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상의학에서 素證은 病證 발현의 차이를 유발하여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출발점이 된다.² 따라서 四象人 病證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素證을 잘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四象人 개별 특징에 대한 연구로서 素證과 관련된 病證論에 관한 고찰²부터 문진표를 중심으로 김^{3,45} 등이 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으며, 이후 體質別 素證의 특징,^{6,7,8,9,10} 대변,^{11,12} 소변, 땀,^{13,14} 소화,¹⁵ 수면^{16,17,18,19}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또한 다기관 약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여 素證에 대한 임상적 연구^{20,21}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體質 내에서 病證에 따른 진단지표가 되는 임상적 증상에 대한 연구로서 太陰人 燥熱病證에 대한 연구,²² 太陰人 表裏病群 간에 따른 素證 연구²³ 등이 진행되었다.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는 少陽人 亡陰證을 주된 증상의 寒熱에 따라 身熱頭痛亡陰證과 身寒腹痛亡陰證으로 나누어, 두 群의 素證이 다르고 따라서 이에 따른 처방이 다름을 보여준다.¹⁾ 그리고 少陽人 亡陰證의 素證을 설명하면서, 少陽人은 평소 補陰하고 미리 治療하라²⁾고 하여 素證의 중요성과 素證에 따른 豫治를 강조하였다.²⁴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이론에 대해 실제 임상에서 확인한 연구가 없었기에, 본 연구는 사상체질 전문의에 의해

확진된 少陽人 亡陰證群을 대상으로 하여 身熱頭痛亡陰證群과 身寒腹痛亡陰證群에 따라 素證의 차이와 설문지의 증후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II. 研究方法

1. 연구대상 및 방법

2007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서울 소재 소화기 질환 전문 한의원에 소화불량³⁾을 주소로 내원한 만 23세 이상의 남녀 환자로 본 연구에 동의한 환자 중 體形氣像, 四診, QSCC II+, 素證 설문지 등을 근거하여 사상체질전문의를 진단과 약물반응을 통해 확진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약물반응의 호전 여부는 문서상 기록된 의무기록에 근거하였다.

1) 대상자 선정 및 병증분류 기준

- ① 초진으로 내원한 환자 중 사상체질이 정확히 진단된 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 ② 동일 처방을 4주 이상 복용하였으며, 2회 이상 내원하여 주소증인 소화기 증상 또는 素證의 호전반응을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③ 처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상의 호전을 보인 시기에 복용하고 있었던 처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④ 身熱頭痛亡陰證 및 身寒腹痛亡陰證 처방의 분류: 身熱頭痛亡陰證群은 荊防瀉白散, 黃連瀉白散 및 그 가감방을 처방받은 환자군(이하 '荊防瀉白散群')으로 정의하였고, 身寒腹痛亡陰證群은 荊防地黃湯, 少陽補胃湯, 牧丹皮地黃湯 및 그 가감방을 처방받은 환자군(이하 '荊防地黃湯群')으로 정의하였다.

2) 대상자 제외기준

- ① 호전이 미미하여 주증상에 양호한 변화가 없거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 ② 처방이 변하는 과정에서 다른 처방에도 호전 반응

1) 『東醫壽世保元·辛丑本』 9-22 盤龍山老人 論曰 少陽人 身熱頭痛泄瀉 當用 豬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身寒腹痛泄瀉 當用 滑石苦參湯 荊防地黃湯. 此病 名謂之亡陰病.

2) 『東醫壽世保元·辛丑本』 9-34 少陰人 平居 裡煩汗多者 得病 則必成亡陽也 少陽人 平居 表寒下多者 得病 則必成亡陰也 亡陽亡陰人 平居 預治補陰補陽 可也 不可至於亡陽亡陰得病 臨危然後 救病也.

3) ICD-10 진단기준상 위-식도역류질환(K21),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소화불량(K30)에 해당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Soyangin Yin-Depletion Symptomatology(亡陰證)		Total N(%)	p-value
	A type of Hyeongbangsaback-san [*]	A type of Hyeongbangjihwang-tang [†]		
Gender	Male	25(81%)	7(70%)	0.72
	Female	6(19%)	3(30%)	
Age	21~30	10(32%)	2(20%)	0.41
	31~40	8(26%)	3(30%)	
	41~50	10(32%)	2(20%)	
	51~60	3(10%)	3(30%)	
	Total	31(100%)	10(100%)	

* A type of Hyeongbangsaback-san : Heat-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headache

† A type of Hyeongbangjihwang-tang : Cold-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abdominal pain

을 보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 ③ 처방전 상에 처방이 기록되어있지 않거나, 주증상이 소화기 증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전체 대상자 123명 중 호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8명과 처방이 변하는 과정에서 다른 처방에도 호전반응을 보인 2명, 주증상이 소화기 증상이 아닌 1명, 처방이 기록되지 않은 2명, 총 13명을 제외하였다. 남은 110명 중 少陽人은 56명이었으며 亡陰證에 해당되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41명이었다.

2.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입력은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 분석으로는 SPSS 12.0K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각 소증설문지 항목에 대한 응답을 '거의 그렇지 않다'를 0으로, '가끔(또는 조금) 그렇다'를 1로, '자주(또는 매우) 그렇다'를 2로 변환하여 少陽人 身熱頭痛亡陰證群과 身寒腹痛亡陰證群의 점수의 평균을 구해 Independent-Samples T-test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Ⅲ. 研究結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110명 환자 중에서 少陽人 56명 중 亡陰證 환자인 41명이다. 荊防瀉白散群 31명과

荊防地黃湯群 10명간의 성별과 나이에 따른 처방의 차이는 없었다.($p>0.05$, chi-square test) (Table 1.)

2. 荊防瀉白散群과 荊防地黃湯群의 素證 비교

소증설문지의 항목 중 荊防瀉白散群과 荊防地黃湯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을 살펴보았다. (Table 2. Fig. 1.)

1) 식사 및 소화

'평소 과식이나 폭식을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의 문항에서 荊防瀉白散群(0.94 ± 0.57)은 '보통'(1)에 가까운 값을, 荊防地黃湯群(0.40 ± 0.52)은 전자보다 '거의 하지 않는다'(0)에 가까운 값을 보였다($p=0.01$). '평소 소화상태는 어떠합니까'에 대한 응답은 荊防瀉白散群이 '가끔 소화가 안 된다'(1점)에 가까운 $0.74(\pm0.68)$ 였고, 荊防地黃湯群은 $0.22(\pm0.44)$ 로 전자보다 '항상 소화가 안 되는 편이다'(0)에 가까운 값을 나타냈다($p=0.04$).

2) 땀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립니까?'의 문항에서 荊防瀉白散群(1.23 ± 0.67)은 荊防地黃湯群(0.60 ± 0.84)보다 큰 값을 보였다($p=0.02$). '평소 땀을 많이 흘립니까'의 문항은 荊防地黃湯群(0.00 ± 0.00)이 모두 '땀을 거의 흘리지 않는다'고 답했고, 荊防瀉白散群(0.23 ± 0.50)은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값이었다($p=0.02$). '땀을 흘린 후 피로감을 많이 느낌니까'에 대해 荊防地黃湯群은 $1.33(\pm0.50)$ 로 '보통'(1) 이상

Table 2. Differences of Original Symptoms between Group of Hyeonbangsaback-san and Group of Hyeonbangjihwang-tang in Soyangin Yin-Depletion Symptomatology(亡陰證)

Variable		Soyangin Yin-Depletion Symptomatology(亡陰證)		p-value
		A type of Hyeonbangsaback-san [*]	A type of Hyeonbangjihwang-tang [*]	
		(Mean ± S.D.)	(Mean ± S.D.)	
Sleep	Much dreamed	1.32±0.65	0.90±0.74	0.09
	Hypnagogic tendency	0.77±0.76	0.60±0.70	0.53
	Sleep disorder	0.81±0.70	0.80±0.42	0.98
	Aspects of cover with bedclothes	1.16±0.64	1.30±0.48	0.53
Meal & Digestion	Appetite	1.23±0.67	0.90±0.57	0.17
	Tendency of overeating	0.94±0.57	0.40±0.52	0.01
	Speed of eating	1.29±0.69	1.20±0.79	0.73
	Condition of digestion	0.74±0.68	0.22±0.44	0.04 *
	Heartburn	1.24±0.79	0.70±0.67	0.06
	Thirsty	1.00±0.60	0.67±0.71	0.17
	Amount of meal	1.26±0.82	1.10±0.57	0.50
	Water temperature(cold)	1.29±0.74	1.00±0.67	0.28
	Frequency of defecation	1.06±0.63	1.10±0.57	0.87
	Hardness of feces	0.68±0.54	0.50±0.53	0.37
Defecation	Tendency of constipation	0.96±0.53	0.75±0.46	0.32
	Time of defecation	0.97±0.71	1.00±0.67	0.90
	Discomfort after defecation	0.84±0.69	0.44±0.53	0.12
	Feel bloated	1.45±0.68	1.25±0.71	0.46
Urination	Frequency of urine	1.19±0.70	1.22±0.67	0.91
	Frequency of nocturia	0.52±0.57	0.30±0.48	0.29
	Off-colored urine_red or yellow	0.94±0.57	0.75±0.71	0.44
	Unpleasant after urine	0.74±0.68	0.80±0.63	0.81
Sweating	Perspiration after exercise	1.23±0.67	0.60±0.84	0.02 *
	Usual perspiration	0.23±0.50	0.00±0.00	0.02 *
	Perspiration in sleep	0.29±0.53	0.20±0.42	0.63
	Tiredness after perspiration	0.79±0.73	1.33±0.50	0.05 *
Coldness/ Warmness	Sensitivity to Warm temperatures	0.45±0.76	0.57±0.53	0.70
	Cold intolerance on extremities	1.07±0.74	1.60±0.52	0.04 *
Other things	Sensitivity to murky air	1.27±0.74	1.60±0.52	0.20
	Anxiety	1.42±0.67	1.00±0.76	0.13
	Impetuous temper	1.48±0.57	1.40±0.52	0.68
	Lose will	0.90±0.65	0.80±0.42	0.64
	Feel stuffy	1.16±0.73	0.67±0.71	0.08
	Palpitation	0.65±0.66	0.75±0.71	0.70
	Tireness	1.45±0.57	1.50±0.53	0.81
	Headache	0.60±0.62	1.00±0.87	0.13
	Feel dizzy	0.43±0.57	0.75±0.71	0.19
	Xerophthalmia/Copioopia	1.29±0.78	1.57±0.79	0.40
	Tinnitus/Be deafened	0.33±0.61	0.33±0.82	0.00 *
	Hot flush on face	0.68±0.79	0.43±0.79	0.46
	Bulbar sensation in throat	0.60±0.81	0.75±0.71	0.64
	Stiff shoulders/neck	1.23±0.72	1.00±0.76	0.44
	Numbness of extremities	0.37±0.56	0.50±0.76	0.58
	General edema	0.28±0.53	0.00±0.00	0.01 *
	Itching sensation of skin	0.48±0.74	0.50±0.76	0.95
	Skin trouble pimple	0.68±0.75	0.50±0.76	0.55

* A type of Hyeonbangsaback-san : Heat-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headache

* A type of Hyeonbangjihwang-tang : Cold-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abdominal p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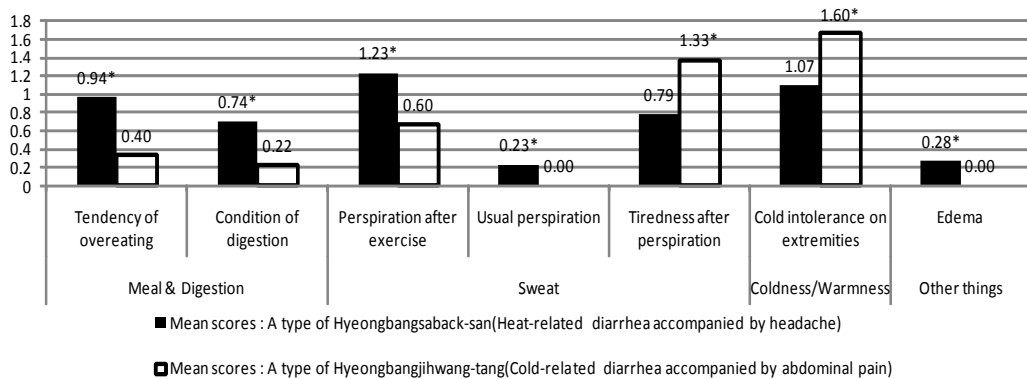


Fig 1. Difference of original symptoms between A type of Hyeongbangsaback-san and A type of Hyeongbangjihwang-tang

이었으며 荊防瀉白散群(0.79 ± 0.73)은 '보통'(1) 이하였다($p=0.05$)

3) 寒熱

'평소 손발이 찬 편입니까'의 문항에서는 荊防地黃湯群(1.07 ± 0.74)이 '보통'인 1에 가까운 값이었으며 荊防瀉白散群(1.60 ± 0.52)은 전자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p=0.04$)

4) 기타

기타 항목 중 신체부중에 대한 응답은 荊防地黃湯群(0.00 ± 0.00)은 모두 '거의 없다.'(0)였고, 荊防瀉白散群(0.28 ± 0.53)은 그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p=0.01$)

IV. 考 察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는 少陽人 亡陰證을 처음 表病證이 발현될 때부터 腎弱, 즉 陰清之氣를 생성하는 腎氣가 약한 상태에서 출발한 병으로²⁾ 그 병리기전을 少陰人 亡陽證과 대비하여 설명하였다. 亡陰證은 몸에 비록 열기가 많으나 陽盛格陰으로 패한 陰이 안으로 달아나서, 추위를 싫어하고 泄瀉를 하게 된 것으로, 이는 陰이 장차 망하려는 징조라고 하며 腹痛과 泄瀉가 생기는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⁴⁾ 또한 腎陰不足에서 병이 출발한다는 것과 평소 背表가 차고 泄瀉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병을

얻으면 반드시 亡陰이 나타난다⁵⁾는 설명에서, 亡陰證은 陰清之氣가 약해서 表寒下多의 素證을 가진 이에게서 발병되는 것으로 少陽人 脾受寒表寒病 중 險危證에 해당된다.

이러한 개념은 처방에서도 반영되어 있어, 身熱頭痛泄瀉에는 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을, 身寒腹痛泄瀉에는 滑石苦參湯 荊防地黃湯을 사용했는데 이들 4가지 처방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荊芥 防風 羌活 獨活에 대해서 少陽人에서 利小便하는 약이라고 하였고⁶⁾, '新定 少陽人病應用要藥 十七方'에서 補陰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補陰

4) 『東醫壽世保元·辛丑本』 9-31 古醫 有言頭無冷痛 腹無熱痛 此言非也. 何謂然耶. 少陰人 元來冷勝 則其頭痛亦自非熱痛 而即冷痛也 少陽人 元來熱勝 則其腹痛亦自非冷痛 而即熱痛也 古醫 又言汗多亡陽 下多亡陰 此言是也. 何謂然耶. 少陰人 雖則冷勝 然 陰盛格陽 敗陽外通 則煩熱而汗多也 此之謂亡陽病也 少陽人 雖則熱勝 然 陽盛格陰 敗陰內通 則畏寒而泄下也 此之謂亡陰病也. 亡陽亡陰病 非用藥 必死也 不急治 必死也.

『東醫壽世保元·辛丑本』 9-32 亡陽者 陽不上升 而反爲下降 則亡陽也 亡陰者 陰不下降 而反爲上升 則亡陰也. 陰盛格陽於上 則陽爲陰抑 不能上升於胸膈 下陷大腸 而外通膀胱故 背表煩熱而汗出也 煩熱而汗出者 非陽盛也 此所謂內冰外炭 陽將亡之兆也. 陽盛格陰於下 則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膈 而內通膈裡故 腸胃畏寒而泄下也 畏寒而泄下者 非陰盛也 此所謂內炭外冰 陰將亡之兆也.

5) 『東醫壽世保元·辛丑本』 9-34 少陰人 平居 裡煩汗多者 得病 則必成亡陽也 少陽人 平居 表寒下多者 得病 則必成亡陰也 亡陽亡陰人 平居 預治補陰補陽 可也 不可至於亡陽亡陰得病 臨危然後 救病也.

6) 『東醫壽世保元·辛丑本』 7-67 (中略) 荊芥 防風 羌活 獨活 茯苓 澤瀉 能利少陽人小便.

Table 3. The Comparison of Symptomatology Recognition between Heat-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Headache(身熱頭痛亡陰證)* and Cold-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Abdominal Pain(身寒腹痛亡陰證)*

		少陽人 亡陰證	
病證 認識	病理機轉	身熱頭痛亡陰證	身寒腹痛亡陰證
	素證의 寒熱	胃熱이 熾盛하여 陰清之氣와 正邪相爭을 하는 중에 脾局의 熱氣가 中上焦에만 몰리고 陰清之氣가 大腸局으로 하강하여 泄瀉가 나는 證 熱多寒少 (素證상 寒症과 熱症이 모두 강하게 나타남)	胃熱이 熾盛한 중에 腎局에서 생성되는 陰清之氣 자체가 약해져 胃熱이 아래로까지 뻗치고 이에 밀려난 陰清之氣 때문에 大腸局으로 하강하여 泄瀉를 주로 하는 證 寒多熱少 (少陽人 表病 중 素證이 가장 寒症임)
	素證의 경향성	과식/폭식 경향 소화 양호 운동 후/평소 땀이 많음 신체 부중	汗出 후 피로도 手足冷證
處方		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滑石苦參湯, 荊防地黃湯

* Heat-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headache(身熱頭痛亡陰證) : 荊防瀉白散群

* Cold-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abdominal pain(身寒腹痛亡陰證) : 荊防地黃湯群

은 少陽人의 保命之主인 陰清之氣를 도와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²⁶

이는 논문에서 이러한 亡陰證에 두 가지 寒熱이 다른 證이 있음을 말하였는데 少陽人은 寒熱往來하고 熱이 있으면서 頭痛이 있는 泄瀉와 몸이 차면서 腹痛이 있는 泄瀉가 모두 존재하며 寒熱을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 譫語證에 대한 4가지 治驗例 중 譫語證 治驗例 37), 48)를 비교해보면, 같은 亡陰이라 하더라도

素證에 따라 身熱頭痛亡陰證과 身寒腹痛亡陰證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²⁴ 황²⁵의 논문에서 身熱頭痛亡陰證은 熱症 중심의 病證이고 運用되는 荊防瀉白散, 猪苓車前子湯의 구성을 살펴볼 때, 身寒腹痛亡陰證보다는 腎氣의 虛損, 즉 腎弱이 심하지 않은 경우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身熱頭痛亡陰證은 清裏熱을 우선으로 하면서 降表陰을 같이 고려하는 治法을 적용하고, 身寒腹痛亡陰證은 腎弱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病證이기 때문에 滑石苦參湯, 荊防地黃湯으로 補腎陰을 우선으로 하면서 降表陰하는 治法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구²⁷의 연구에서는 荊防瀉白散은 表寒病처방 중 裏熱의 세력이 커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고, 荊防地黃湯은 虛弱者에게 多用하면 效果가 있다고 말했다. 김²⁸ 또한 "少陽傷風證에 사용하는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및 身寒腹痛亡陰證에 사용하는 荊防地黃湯, 滑石苦參湯은 '寒多熱少' 계열로, 少陽傷風證의 荊防瀉白散과 身熱頭痛亡陰

7) 『東醫壽世保元·辛丑本』 9-43 其後 又有 少陽人 一人 初得頭痛身熱 表寒病 八九日. 其間 用黃連 瓜蒌 羌活 防風等屬 病勢少愈 而永不快 祇矣 仍爲發狂三日 病家以尋常例證 視之 而祇用黃連 瓜蒌等屬 又譫語數日 始用地黃白虎湯 一貼 其翌日午後動風 急煎地黃白虎湯連三貼救急 而艱辛下咽 其翌日 則白虎湯 加石膏一兩 午前用之 以備動風 而連三日用之 病人 自起坐立 能大小便 病勢比前 快蘇快壯矣 不幸病加於少愈 慮不周於完治 此人 竟不救 恨不午前 祇用白虎湯 二貼 以備動風 而午後 全不用藥以繼之也. 以此三人病 觀之 則發狂譫語證 白虎湯 非但午前用藥 以備動風而已矣 日用五六貼 七八貼 十餘貼 以晝繼夜 則好矣 不必待譫語後 而用藥 發狂時 當用藥 可也 不必待發狂後 而用藥 發狂前早察發狂之漸 可也.

8) 『東醫壽世保元·辛丑本』 9-44 其後 又有一 少陽人 十七歲 女兒 素證 間有悖氣 食滯腹痛矣 忽一日 頭痛寒熱食滯 有醫 用蘇合元三箇 薑湯調下 仍爲泄瀉 日數十行 十餘日不止 引飲不眠 間有譫語證 時則已亥年 冬十一月二十三日也. 卽夜 用生地黃 石膏 各六兩 知母三兩 其夜 泄瀉度數 減半 其翌日 用荊防地黃湯 加石膏四錢 二貼連服 安睡而能通小便 荊防地黃湯 二貼藥力 十倍於知母白虎湯 可知矣. 於是 每日用此藥四貼 晝二貼連服 夜二貼連服 數日用之 泄瀉永止 頭部兩鬢 有汗 而病兒譫語證 變爲發狂證 病家驚惑 二晝夜 疑不用藥 病勢遂危 頭汗不出 小便秘結 口嚙冰片 不省人事 爰象 可惡

矣 勢無奈何 以不得已之計 一夜間 用荊防地黃湯 加石膏一兩 連十貼灌口 其夜 小便通三碗 狂證不止 然 知人看面 稍有知覺. 其翌日 又用六貼 連五日 日用四五六貼 發狂始止 夜間 或霎時就睡 然 不能久睡便覺 又日用三四貼 連五日 頭頂兩鬢 有汗 而能半時刻 就睡 稍進粥飲少許. 其後 每日荊防地黃湯 加石膏一錢 日二貼用之 大便 過一日 則加四錢 至于十二月二十三日 始得免危 能起立房室中 一朔內 凡用石膏 四十五兩. 新年正月十五日 能行步一里地 而來見我 其後 又連用荊防地黃湯 加石膏一錢 至于新年三月.

證의 荊防瀉白散, 猪苓車前子湯은 '熱多寒少' 계열로 묶을 수 있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荊防瀉白散群을 사용하는 身熱頭痛亡陰證은 胃熱이 熾盛하여 陰清之氣와 正邪相爭을 하는 중에 脾局의 熱氣가 中上焦에만 몰리고 陰清之氣가 大腸局으로 하강하여 泄瀉가 나는 證으로, 脾受寒表寒病 屬이지만 熱症과 寒症이 함께 강하게 나타나는 證이다. 이와 달리 荊防地黃湯群을 사용하는 身寒腹痛亡陰證은 胃熱이 熾盛한 중에 腎局에서 생성되는 陰清之氣 자체가 약해져 胃熱이 아래로까지 뻗치고 이에 밀려난 陰清之氣가 大腸局으로 하강하여 泄瀉를 주로 하는, 表病 중 素證이 寒證으로 볼 수 있다.(Table 3.)

살펴본 바와 같이 少陽人 亡陰證 중 身熱頭痛亡陰證과 身寒腹痛亡陰證 또한 素證 상에서 寒熱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론에 대해 실제 임상에서 확인하기 위해, 少陽人 亡陰證의 荊防瀉白散群과 荊防地黃湯群을 나누어 그 증후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56명의 少陽人 중에 41명이 亡陰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少陽人 表病과 裏病 중에서 소화기 질환의 발생율이 높은 群은 몸이 찬 脾受寒表寒病 群이고, 그 중 脾局의 水穀熱氣가 성한 少陽人임에도 保命之主인 陰清之氣가 부족하여 식욕소화의 상태가 떨어질 수 있는 亡陰證群이 큰 비율을 차지함(73%)을 보여준다. 이 41명의 亡陰證 환자군을 身熱頭痛亡陰證의 荊防瀉白散群(荊防瀉白散, 黃連瀉白散 처방 환자군)과 身寒腹痛亡陰證의 荊防地黃湯群(荊防地黃湯, 少陽補胃湯, 牡丹皮地黃湯 처방 환자군)으로 나누었다.

식사 및 소화에서 荊防瀉白散群은 荊防地黃湯群에 비해 '과식·폭식 경향성'이 높고, '소화력'이 양호한 것은 身熱頭痛亡陰證이 熱多寒少之證으로, 中上焦에 脾局의 熱氣(裏熱)가 熾盛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荊防地黃湯群인 身寒腹痛亡陰證은 寒多熱少之證으로서 두 亡陰證 중에서도 保命之主인 陰清之氣가 더 약한 危證으로, 『辛丑本』 譴語證 마지막 治險例9)에서도 보듯이 素證으로 悖氣 食滯腹痛을 가지고 있다. 구²⁷⁾의 연구에서도

荊防瀉白散群에 비해 荊防地黃湯群이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땀을 흘리는 정도와 손발의 熱感은 몸의 寒熱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평소 땀을 흘리는 정도는 荊防瀉白散群이 荊防地黃湯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값이지만, 둘 다 "거의 흘리지 않는다"(0점)에 가까운 수치이므로 유의한 차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荊防瀉白散群이 운동 후 땀을 더 많이 흘리고, 荊防地黃湯群이 땀을 흘리고 난 후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며, 평소 손발이 찬 편이라는 결과는 荊防瀉白散群이 荊防地黃湯群에 비해 몸에 熱이 盛한 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脾局의 水穀熱氣가 盛해 身熱하기 쉬운 少陽人임에도, 表에 寒症이 나타나는 것은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이고, 그 중 保命之主인 陰清之氣가 弱한 險證이 亡陰證이다. 『辛丑本』에서는 頭痛과 腹痛에도 寒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¹⁰⁾을 들며 少陽人의 腹痛은 裏熱이 熾盛해서 생긴 증상이고, 少陽人의 泄瀉 역시 陽이 陰을 꺾어 陰清之氣가 달아나서 생긴 外寒과 泄瀉임을 말해주면서 亡陰證에서 급히 약을 쓰고 평소에 補陰補陽을 해야 함¹¹⁾을 말

9) 『東醫壽世保元·辛丑本』 9-44 其後 又有一 少陽人 十七歲 女兒 素證 間有悖氣 食滯腹痛矣 忽一日 頭痛寒熱食滯 有醫 用蘇合元三箇 薑湯調下 仍爲泄瀉 日數十行 十餘日不止 引飲不眠 間有譴語證 時則已亥年 冬十一月 二十三日也 卽夜 用生地黃 石膏 各六兩 知母三兩 其夜 泄瀉度數 減半 其翌日 用荊防地黃湯 加石膏四錢 二貼連服 安睡而能通小便 荊防地黃湯 二貼藥力 十倍於知母白虎湯 可知矣 於是 每日用此藥四貼 晝二貼連服 夜二貼連服 數日用之 泄瀉永止 頭部兩鬢 有汗 而病兒譴語證 變爲發狂證 病家驚惑 二晝夜 疑不用藥 病勢遂危 頭汗不出 小便秘結 口嚙冰片 不省人事 灸象 可惡矣 勢無奈何 以不得已之計 一夜間 用荊防地黃湯 加石膏 一兩 連十貼灌口 其夜 小便通三碗 狂證不止 然 知人看面 稍有知覺 其翌日 又用六貼 連五日 日用四五六貼 發狂始止 夜間 或霎時就睡 然 不能久睡便覺 又日用三四貼 連五日 頭頂兩鬢 有汗 而能半時刻 就睡 稍進粥飲少許 其後 每日荊防地黃湯 加石膏 一錢 日二貼用之 大便 過一日 則加四錢 至于十二月 二十三日 始得免危 能起立房室中 一朔內 凡用石膏 四十五兩 新年正月十五日 能行步一里地 而來見我 其後 又連用荊防地黃湯 加石膏 一錢 至于新年三月.

10) 『東醫壽世保元·辛丑本』 9-20 李子建 傷寒十勸論曰 傷寒腹痛 亦有熱證 不可輕服溫煖藥. 又曰 傷寒自利 當觀陰陽證 不可例服 溫煖及止瀉藥.

11) 『東醫壽世保元·辛丑本』 9-31 (中略) 少陽人 元來熱勝 則其腹痛 亦自非冷痛 而卽熱痛也 (中略) 少陽人 雖則熱勝 然 陽盛格陰 敗陰內逼 則畏寒而泄下也 此之謂亡陰病也. 亡陽亡陰病 非用藥 必死也 不急治 必死也.

하고 있다. 즉 陰淸之氣 부족으로 오는 두 亡陰證이지만 身熱頭痛亡陰證은 表에도 熱症이 나타나 운동 후 땀을 흘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身寒腹痛亡陰證은 表에 寒症이 나타나므로 땀을 흘리고 난 후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손발이 찰 수 있다. 이 중 身熱頭痛亡陰證보다 身寒腹痛亡陰證이 더 심한 病證이고 寒症이다. 이는 앞서 결과에서 荊防地黃湯群이 荊防瀉白散群에 비해 식사소화 상태도 좋지 않았음을 더하여, 『辛丑本』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에서 荊防地黃湯을 陰淸之氣가 약한 虛弱者에게 多用하면 效果가 있다고 한 것과 연결해 볼 수 있다.¹²⁾ 구²⁷⁾의 연구에서도 荊防瀉白散은 表寒病 처방 중 陽熱이 가장 성한 상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냉수에 대한 선호도’와 ‘몸의 熱의 상태’에 관한 문항에서는 荊防瀉白散이 荊防地黃湯을 비롯한 다른 少陽人 처방들에 비해 찬 물을 좋아하고 몸에 熱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荊防瀉白散은 피로, 예민, 흥민, 수족비증의 문항에서 주로 긍정적인 경향의 대답이 많았고, 荊防地黃湯은 타 처방에 비해 피로를 많이 느꼈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타 항목 중 신체 부종은 荊防地黃湯群에 비해 荊防瀉白散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ig 1.) 하지만 둘 다 “거의 없다”(0점)에 가까운 수치이므로 유의한 차이라고 볼 수 없다. 荊防地黃湯은 『東醫壽世保元』에 의하면 少陽人 表寒證의 身寒, 泄瀉, 亡陰證과 浮腫의 初結症, 그리고 頭腹痛, 凡虛弱者에 활용되는 처방으로²⁹⁾ 부종의 적응증을 가지지만, 본 연구 대상자에서는 부종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그 수치가 0에 가까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나 그 결과가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상체질 진단에 있어서 사상체질 전문 의의 진료와 4주 이상의 약물반응을 통해 확진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상자 모두 소화불량을 주소로 하는 환자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개 서울 소재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만

을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의 한계 및 선택편견의 한계점이 있다는 점, 대상자 중 少陽人 亡陰證群의 수가 적고 身熱頭痛亡陰證群과 身寒腹痛亡陰證群 간의 수 차이가 크다는 점, 의무기록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 힘든 증상의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점 등의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V. 結 論

서울 소재 한의원에서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사상체질전문의를 진단과 4주 이상의 약물반응을 통해 확진된 少陽人 亡陰證 41명을 身熱頭痛亡陰證群(31명)과 身寒腹痛亡陰證群(10명)으로 구분하여 두 군 간의 素證의 차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身熱頭痛亡陰證群은 과식·폭식 습관($p=0.01$), 소화 양호($p=0.04$), 운동 후 땀이 남($p=0.02$), 평소 땀이 많음($p=0.00$), 신체 부종($p=0.01$) 등의 항목에서 높은 경향성, 身寒腹痛亡陰證群은 汗出 후 피로도($p=0.05$), 수족 냉증($p=0.04$) 등의 항목에서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동일한 少陽人 亡陰證이라 하더라도 身熱頭痛亡陰證群과 身寒腹痛亡陰證群이 素證이 각각 熱症과 寒症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素證의 寒熱에 따라 病證 발현이 다르게 발전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VI. 感謝의 글

본 연구는 2011년도 부산대학교병원 임상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VII. 參考文獻

1. Song IB. A Study on the Process for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Syndrome, Constitutional Disease Syndrome in Sasangin. J Sasang Constitut Med. 1994;6(1):71-79.(Korean)

12) 『東醫壽世保元·辛丑本』 荊防地黃湯(中略) 無論 頭腹痛 痞滿 泄瀉 凡虛弱者 數百貼用之 無不必效 屢試屢驗

2. Lee SK, Song IB. The Study about 『The Di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of Sasangin on the 『Dongyi Suse Bowon』. J Sasang Constitut Med. 1999;11(2):1-26.(Korean)
3. Kim JY. A Clinical Study of the Type of Disease and Symptom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J Sasang Constitut Med. 1996;8(1): 337-347. (Korean)
4. Kim YW, Kim JW. A Clinical Study of the Type of Disease and Symptom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J Sasang Constitut Med. 1999;11(1): 119-135.(Korean)
5. Lee YO, Kim JW. A Clinical Study of the Type of Disease and Symptom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2;14(3):74-84.(Korean)
6. Kim JJ, Lee YS, Park SS. A Clinical Study of Sleeping, Stool, Urine According to Taeyangsoyangin(Yangin) and Taeumsoeumin(Eumin). J Sasang Constitut Med. 2005;17(3):82-90.(Korean)
7. Park HS, Lee YS, Park SS.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Sweat, Stool, Urine, Digestion) of Soyang · Soeumin and Taeyang · Taeumin in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1):107-117.(Korean)
8. Ham TI, Hwang MW, Lee TK, Kim SB, Lee SK, Koh BH, et al. The Clinical Study on Ordinary Symptoms and Pathological Symptoms of Stroke In-patients based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 Sasang Constitut Med. 2004;16(3):34-45.(Korean)
9. Choi JY. A Study of ordinary symptom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using logistic reg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of Dongguk Univ. 2003.(Korean)
10. Kim SM, Song IB. A Study of ordinary symptoms in the Dongyi Soose Bowon, Sasang Chobongyun and DongmuYugo. J Sasang Constitut Med. 2000;12(2):67-77.(Korean)
11. Lee JC, Kim DL.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 syndrome based on the observation of feces. J Sasang Constitut Med. 1992;4(1):171-177.(Korean)
12. Choi JY, Park SS. A Clinical Study of Stool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2; 14(2):58-68.(Korean)
13. Ha MS.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constitutions based on sweating. J Sasang Constitut Med. 1993;5(1):131-137.(Korean)
14. Seo W, Song JM. A Stud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bout Sweating, J Sasang Constitut Med. 2000;12(2):56-66.(Korean)
15. Baek TH, Choi JR, Park SS. A Correlation Research of Diges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4;16(1):112-119. (Korean)
16. Kim MG, Park SS. A Study of constitutional disease with sleep as constitutional symptom. J Sasang Constitut Med. 2004;16(2):52-57.(Korean)
17. Choi JY, Choi JR, Lee US, Park SS. A Study on the Clinical Features of Ordinary sleeping Patterns Based on the Sasang Constitution, Using the Logistic Regrission. Kor J, of Oriental Medicine. 2004;25(4):171-179. (Korean)
18. Choi JR, Park SS. A Clinical Study of Sleep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3; 15(3):204-215.(Korean)
19. Choi JR, Choi JY, Lee YS, Park SS. A Study on the Clinical Features of the Ordinary Sleeping Patterns of Taeumin Using Logistic Regress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4;16(3):18-24.(Korean)
20. Jang ES, Kim HS, Lee HJ, Baek YH, Lee SW. The Clinical Study on the Ordinary and Pathological Symptom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144-155.(Korean)
21. Baek YH, Kim HS, Lee SW, Ryu JH, Kim YY, Jang ES. The Study on the Ordinary Symptioms Characteristics of Gender Differenc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Korean J. Oriental Pysiology & Pathology. 2009;23(1):1-8. (Korean)
22. Kim YH, Kim SH, Jang HS, Hwang MU, Lee JH, Lee EJ, Koh BH. The Study on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aeumin Dry-Heat Symptomatic Patten.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1):85-98.(Korean)

23. Kim SH, Park KH, Jang ES, Kim JY, Differences in the Symptoms between Exterior-disease and Interior of TE type-Based on 659 Subjects.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2):96-106.(Korean)
24. Kwon OI, Lee JH, Kim YH, Hwang MW, The Study on the Mangeum-syndrome(亡陰證) of Soyangin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CM). J Sasang Constitut Med. 2011;23(1):44-52.(Korean)
25. Hwang MW, Koh BH. The Study on the Pathology of Soyangin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CM).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3):1-16. (Korean)
26. Hwang MW, Koh BH. The Study on the Chronical Concept of Etiology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CM).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 (1):1-19. (Korean)
27. Goo DM, A Clinical Study on Soyangin Prescrip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5;17(2):52- 63.(Korean)
28. Kim SH, Kim YH, Jang HS, Lee JH, Koh BH. A Study of Soyangin's Delirious Speaking Bad Disease in Exterior Cold Disease induced from the Spleen Affected by Cold.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3):14-20. (Korean)
29. Kang MJ, Lee JW, Jang HS, Kim YH, Lee JH, Lee EJ, Koh BH. A Case Study of 1 Soyangin patient with sequence of Adult type Still's disease who reported symptomatic improvement after being treated with Hyeongbangjihwang-tang.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2):114-152.(Korean)

건강상태 평가와 사상체질진단을 위한

소증 설문지

素證

평소(최근 1년) 귀하께서 평균적으로 느끼시는 증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병록번호	※ 적지 마세요	일 시	※ 적지 마세요
성 명		성별/나이	남, 여 / 만 세

◆ 다음 각 질문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에 표시해 주세요. (예. ☒)

수면	1. 평소 주무실 때 꿈이 많으신 편입니까? * 1주일에 3-4번 정도 꿈을 꾸다면 “많은” 편입니다	☐ 꿈이 많은 편이다. ☐ 가끔 꾸는 편이다. ☐ 거의 없는 편이다.
	2. 평소 잠들기가 힘든 편입니까? * 1주일에 3-4번 정도 10분 이상 걸린다면 “자주”입니다	☐ 자주 잠들기가 힘들다. ☐ 가끔 그렇다. ☐ 쉽게 잠이 드는 편이다.
	3. 평소 주무시다가 자주 깨는 편이십니까? * 1주일에 3-4번 정도 1-2회 이상 깬다면 “자주”입니다	☐ 자주 깨는 편이다. ☐ 가끔 그렇다. ☐ 깊게 잘 자는 편이다.
	4. 평소 주무실 때 이불을 잘 덮고 주무십니까? * 계절, 상황에 따라 덮는 정도가 달라지면 “보통”입니다	☐ 항상 손발까지 잘 덮고 자는 편이다. ☐ 보통이다.(상황에 따라 다르다.) ☐ 거의 안 덮거나, 배만 덮고 손발은 내놓는다.
식욕소화	5. 평소 식욕은 어떠합니까? * 몸이 안 좋거나 힘들 때 가끔 식욕이 없다면 “보통”입니다	☐ 없는 편이다. ☐ 보통이다. ☐ 좋은 편이다.
	6. 평소 과식이나 폭식을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 하루 3끼 이상, 1끼에 한 공기 이상으로 먹는 경우는 “과식”입니다 * 아침은 굶고, 점심은 보통양, 저녁에 보통양보다 2배 정도 먹는다면 “폭식”입니다	☐ 자주 하는 편이다. ☐ 가끔 하는 편이다. ☐ 거의 하지 않는다.(소식하는 편이다.)
	7. 평소 식사를 급하게 하시는 편이십니까? * 다른 사람들과 평균적으로 식사를 비슷하게 끝내면 “보통”입니다.	☐ 급하게 하는 편이다. ☐ 보통이다. ☐ 천천히 하는 편이다.
	8. 평소 소화상태는 어떠합니까? * 과식한다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만 소화가 안 된다면 “가끔”입니다.	☐ 자주 소화가 안 되거나, 체하는 편이다. ☐ 가끔 소화가 안 되거나, 체하는 편이다. ☐ 항상 소화가 잘 되는 편이다.

식 욕 소 화	9. 평소 속이 아프거나 쓰린 것을 느끼니까? * 1달에 1-2회 정도가 있다면 “가끔”입니다	☐ 자주 느낀다. ☐ 가끔 느낀다. ☐ 거의 느끼지 못한다.
	10. 평소 입안이 많이 마르신 편입니까? * 1주일에 1-2회 정도가 있다면 “가끔”입니다	☐ 자주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거의 느끼지 못한다.
	1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는 편입니까? * 식사 외에 물, 커피, 차, 우유 또는 음료수 등을 2-4컵 (500-1,000ml) 정도 마시면 “보통”입니다	☐ 많이 마시는 편이다. ☐ 보통이다. ☐ 적게 마시거나 거의 마시지 않는다.
	12. 평소 차거나 시원한 물을 좋아하십니까? * 온도, 계절에 따라 찬 물, 더운 물을 다 마시면 “보통”입니다 * 늘 실온의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 차거나 시원한 물을 좋아한다. ☐ 보통이다.(상황에 따라 다르다.) ☐ 따뜻하거나 뜨거운 물을 좋아한다.
대 변	13. 평소 하루 배변 횟수는? * 매일 못 보다가도 하루에 2회 이상 가는 경우가 교대로 된다면 “하루에 1회”입니다	☐ 매일은 보지 못한다. ☐ 하루에 1회 ☐ 하루 2회 이상
	14. 평소 대변의 굳기는? * 처음에 굳고 나중에 무른 경우는 “보통”입니다	☐ 굳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무른 편이다.
	15. 평소 변비나 설사가 자주 있습니까? * 이틀에 1회 또는 하루 1-3회 정도는 “보통”입니다	☐ 변비가 자주 생기는 편이다.(3일에 1회 이상) ☐ 보통이다. ☐ 설사를 자주 하는 편이다.(하루에 4회 이상) ☐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나타난다.
	16. 평소 대변을 보는 시간이 짧은 편입니까? * 배변시간이 5-10분 정도면 “보통”입니다	☐ 배변 시간이 짧은 편이다. ☐ 보통이다. ☐ 오래 앉아 있는 편이다.(느린 편이다.)
	17. 평소 배변 후에 잔변감이나 무지러운 증상을 느끼십니까? * 배변 후 대변이 남은 느낌 또는 시원하지 않고 묵직한 느낌이 1주 1회 정도 있으면 “가끔”입니다	☐ 자주 느낀다. ☐ 가끔 느낀다. ☐ 거의 느끼지 못한다.
	18. 평소 배가 더부룩한 것을 느끼십니까? (가스가 많이 차 있는 느낌) * 주 1-2회 정도 느낀다면 “보통”입니다	☐ 자주 느낀다. ☐ 가끔 느낀다. ☐ 거의 느끼지 못한다.

소변	19. 평소 소변을 자주 보십니까? * 주로 활동하는 시간으로 깨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자주 보는 편이다.(수시로/약 1-2시간에 한번) ☐ 보통이다. (약 3-4시간에 한번) ☐ 자주 보지 않는다.(약 4-6시간에 한번)
	20. 평소 수면 중에 소변을 보시는 횟수는? * 자기 전에 과일이나 물을 많이 먹을 때 가는 경우는 “보지 않는다”입니다	☐ 3회 이상 ☐ 1-2회 ☐ 보지 않는다.
	21. 평소 소변이 자주 노랗거나 붉습니까? * 굴이나 약을 먹고 소변색이 노랗거나 붉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자주 노랗거나 붉은 편이다. ☐ 가끔 그렇다. ☐ 항상 소변이 깨끗하고 맑은 편이다.
	22. 평소 소변을 시원하게 보시는 편입니까? * 하루에 1-2회 이상이면 “시원하지 못한 편”입니다	☐ 시원하지 못한 편이다. ☐ 보통이다. ☐ 시원하게 보는 편이다.
땀	23. 날씨가 덥거나 운동할 때에 땀을 많이 흘리십니까? * 줄줄 흐를 정도면 “많이” 흘리는 것이고, 맺혀서 조금씩 흘러 내리는 정도면 “조금” 흘리는 것이고, 약간 맺히는 정도면 “거의”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 많이 흘리는 편이다. ☐ 조금 흘리는 편이다. ☐ 거의 흘리지 않는다.
	24. 날씨가 덥지 않거나 가만히 있을 때에도 땀을 흘리실 때가 있습니까? * 집중을 하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순간적으로 땀이 맺히거나 흐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주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거의 없다.
	25. 평소 주무시면서 땀을 흘리실 때가 있습니까? * 1달에 2-3회 정도면 “가끔”입니다	☐ 자주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거의 없다.
	26. 평소 사우나, 찜질방 등에서 땀을 흘린 후에 상쾌감을 느끼십니까? * 사우나, 찜질방을 가지 않는 경우라면 운동 후에 땀을 흘린 경우로 생각하십시오	☐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다. ☐ 별 느낌이 없다. ☐ 몸이 가볍고 상쾌함을 느낀다.
한여름	27. 평소 추위를 싫어하시는 편입니까? 더위를 싫어하시는 편입니까? *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 어느정도 추위를 타거나 여름에 어느정도 더위를 타는 경우는 “별 느낌이 없다”입니다	☐ 추위에 민감해서 싫어하는 편이다. ☐ 별 느낌이 없다. ☐ 더위에 민감해서 싫어하는 편이다. ☐ 추위, 더위 모두 싫어하는 편이다.
	28. 평소 손발이 찬 편입니까? * 손만 차거나 발이 찬 경우도 “찬” 편입니다	☐ 찬 편이다. ☐ 보통이다. ☐ 따뜻하거나 뜨거운 편이다.

기 타	29. 평소 공기가 탁한 곳에서 잘 견디시는 편입니까? * 10분 내에 느낀다면 “조금만 있어도”입니다	☐ 조금만 있어도 답답하거나 머리가 아프다. ☐ 오래 있으면 불편감을 느낀다. ☐ 오래 있어도 별 다른 불편감이 없다.
	30. 평소 불안, 초조한 마음을 자주 느끼십니까?	☐ 자주 느낀다. ☐ 가끔 느낀다. ☐ 거의 느끼지 못한다.
	31. 매사에 마음이 급한 편입니까?	☐ 자주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거의 그렇지 않다.
	32. 매사에 의욕이 없는 편입니까?	☐ 자주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거의 그렇지 않다.
	33. 평소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 자주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거의 없다.
	34. 평소 가슴이 이유없이 두근거릴 때가 있습니까?	☐ 자주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거의 없다.

◆ 다음 각 문항 중 해당되는 것에 √표 하세요.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거의 없다
피로감을 느낀다.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눈이 쉽게 건조해 지거나, 피로하다.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멍한 느낌이 있다.			
얼굴에 열이 오른다.			
목(인후)에 무엇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든다.			
어깨나 뒷목이 뻐뻐하거나 무겁다.			
손발이 저리다.			
몸이 붓는다.			
피부가 가렵다.			
피부에 무언가 잘 나는 편이다.			